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CEO 인터뷰

박홍득 대호상선(주) 대표

32년 동안 해상화물운송 외길 국적 중견 선사로 발돋움

제니스 윈
2019년에 건조된 제니스 윈은
적재 톤수 3,574톤으로
한국·중국·일본·동남아 등
여러 항구로 화물을 운송한다.

August

Vol
209

2022

IBK STORY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여정

P.02

SPECIAL THEME

새 정부 경제정책: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P.08

ESG ACADEMY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ESG 자본 시장

P.26

COMPANY SOLUTION

퇴직급여의 유형 및 특성과
지급 시 유의사항

P.46

CONTENTS

2022. August. Vol_209

발행일 2022년 8월 10일(통권 제209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윤종원
편집인 조봉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520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주)
인쇄소 (주)교학사
문의 02-360-4816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찾아보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중소기업 CEO 리포트〉
자번호 보기

01_시론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더 박차를 가해야

06_COMPANY POLICY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전자혁신제조 지원기업 모집



02 IBK Story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여정



08 Special Theme

새 정부 경제정책: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 ① 시장경제의 자유가 가져올 기업의 성장
- ② 윤석열 정부의 '어퍼컷 경제'를 기대하며
- ③ 과학 기술과 혁신이 선도하는 미래

20 CEO Strategy

박홍득 대호상선(주) 대표
32년 동안 해상화물운송 외길
국적 증권 선사로 발돋움



26_ESG ACADEMY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ESG 자본 시장

30_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32_VENTURE BIZ

IBK창업인 ①(주)와따 김민규·김경식 대표
IBK창업인 ②(주)모라이 정지원 대표

34_COMPANY CHALLENGE

만성 위기의 시대, 극복해야 살아남는다

36_FUTURE REPORT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미래 운송수단, 하이퍼루프

38_ECONOMIC REVIEW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42_INDUSTRIAL ESTATE

한국의 경제수도 울산의 핵심 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_COMPANY SOLUTION

퇴직급여의 유형 및 특성과 지급 시 유의사항

48_TAX FOCUS

국세청의 세법해석제도

50_CEO OPINION

나는 남과 다르다는 생각이 기업의 혁신을 이끈다

52_IBK POLICY

IBK ESG컨설팅

시론



IBK경제연구소 소장
부행장 조봉현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더 박차를 가해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공급과 수요 모두 물가 상승 압력이 있어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상승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환율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삼중고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복합적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 취약한 민생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은 아직 위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삼중고 현상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과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경영을 악화시키고, 업종 간 양극화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매출이 급감했고, 휴·폐업률이 매우 높았는데, 정상화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IBK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치킨·피자·제과점 등 기타 간이 음식점업(40%), 주점업(37.9%), 외국식 음식점점업(36.9%) 오락장 운영업(34.9%),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33.7%) 등에서 휴·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점,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오락장 운영업 등의 소상공인 매출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은 더딘 반면, 고금리 등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총 2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저리 신규 대출이 지원된다. 앞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 확충, 원재료 구입 등 위기 극복 자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1

IBK 61 YEARS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여정

IBK기업은행이 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이했다. IBK기업은행은 변화된 금융 환경에 맞게 '새로운 60년, 고객을 향한 혁신'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끊임없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금융인들 한자리에 모여 61주년 축하

지난 8월 1일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대강당에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여정'이라는 주제로 IBK 창립 61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등의 정부 및 유관기관장, 거래 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해 IBK기업은행의 창립기념일을 축하했다.

이번 창립기념 행사는 IBK 브랜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창립기념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 등 IBK기업은행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거래 고객, 직원들의 희망메시지 영상과 세리머니,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어 61주년을 맞이하는 IBK기업은행의 창립기념식을 풍성하게 채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행사에 참여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IBK기업은행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 총리는 "IBK기업은행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구는 '보국^{保國}의 역사'였다"고 설명하며, "IBK기업은행은 지금까지 경제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금융안전망이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한 어려운 민생경제 및 기후위기, 양극화 등 현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민생 안정 자금과 경영자금을 지원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기업 투자, 금융 혁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기업, 금융권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국민과 기업의 꿈을 실현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는 주역이 되어 대한민국 중소기업 금융을 선도해주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국민과 기업의 꿈을 실현하는
IBK기업은행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난 8월 1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에서 네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및 주요 내빈들이 디지털 세리머니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여정에
IBK기업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60년 전 IBK기업은행은 자본금 2억 원의 작은 금융기관이었지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소임의 크기는 작지 않았다"면서 "IBK기업은행 창립으로 중소기업자의 정의가 마련되고, 비로소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행장은 국가 경제 발전과 IBK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IBK기업은행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고 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하면서 민간은행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건실한 성장을 일군 IBK기업은행의 노력을 강조했다.

끝으로 윤 행장은 다양한 경제 변수 속에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성과 함께 새로운 60년을 향한 약속을 다짐했다. 그는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우리 산업과 경제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경영을 정착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은행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국책은행의 소명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 IBK기업은행의 발걸음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으로
성장하는 은행



이방희 (주)삼익가구 회장(IBK최고경영자클럽 회장)

IBK기업은행은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을 실천하며 저금리 자금 공급,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은행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이슈들로 많은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바르고 혁신적인 은행으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창립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IBK기업은행,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할 앞날을
기대합니다



이상원 (주)상아프론테크 회장(명예의 전당 협의회장)

IBK기업은행의 창립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61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문제에 귀 기울여주시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을 응원하겠습니다.

“
혁신과 포용으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IBK기업은행



강경희 (주)광진화학 회장(IBK여성경영자클럽 회장)

코로나19, 러·우 전쟁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끝없는 혁신과 성장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IBK기업은행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1년 동안 중소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IBK기업은행이 앞으로도 글로벌 은행, 혁신 은행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IBK기업은행의 창립 61년을 축하합니다.

“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금융그룹
IBK기업은행



김지만 (주)동보 회장(IBK미래경영자클럽 회장)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우산이 되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신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앞장서는 진정한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1년의 발자취를 따라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함께 커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창립 6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IBK 기업은행의 61년 발자취



설립 당시 서울 종로구
건지동 본점 전경(1961.8.1)



1961~1997

창립과 성장 토대 마련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이 절실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1961년 8월 1일 중소기업은행이 출범했다. 중소기업상담소 설치, 중소기업수출증진안내센터 운영,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화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우리경제 되살리기 새출발 다짐대회
(1998.10.1)



1998~2010

경제위기 극복과 대전환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의 사명을 다해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은행으로 거듭났다. 또한 조직을 혁신하고 정보기술 IT 시스템을 구축하며 금융 산업의 전환을 선도해 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
지원 협약(2020.4.21)



2011~2021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한 도전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으로 이미지를 재구축한 이후, IBK BOX, IBK창공 등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고도화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경영을 선포하며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갔다.



2020 전국 영업점장
회의 중 혁신경영 선포
(202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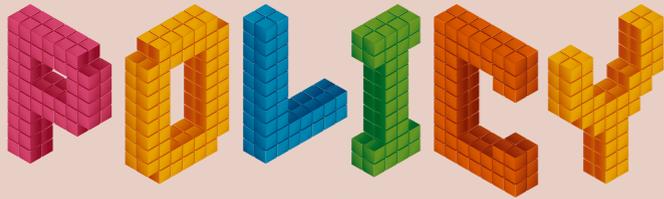


2022~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자산 400조 원의 글로벌 100대 금융그룹으로 '새로운 60년, 고객을 향한 혁신'이라는 경영 슬로건 아래 디지털 전환, ESG경영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중소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Company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전자혁신제조 지원기업 모집

전자혁신제조 SMT 지원기업 모집 사업은 소형 전자제품 초도양산이 가능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자제조지원센터(서울 용산) 내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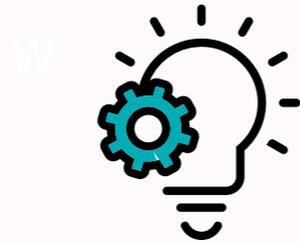


01

지원 대상

소형 전자제품 초도양산이 가능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 소형 전자제품 가볍고 작고 저가이며 주기가 빠르고 사용자 반응이 적용된 중간 기술의 아이디어 소형 가전



02

지원 분야·내용

지원 분야 소형 전자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SMT 지원)

- ☑ SMT Surface Mount Technology는 표면 실장 기술을 뜻하는 약자로,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위에 여러 부속품을 장착하고 납땜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원 내용 제조 엔지니어가 SMT 인라인 In-Line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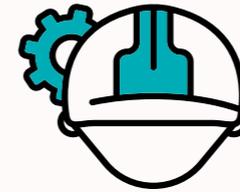
- ☑ 공정에 필요한 재료(PCB, 부품)는 사급 진행

03

지원 절차

제조·하드웨어 엔지니어의 실장 데이터 (Gerber, BOM, 좌표)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 PCB 패드 ↔ BOM, 레퍼런스 ↔ 좌표, 부품 스펙 등 사전 데이터 불량 검토
- ☑ Gerber: PCB 제작에 사용되는 파일



04

심사 기준

| 평가 기준 | 배점 | 상세 평가항목(점) |
|--------|----|---------------------------|
| 전문성 | 30 | ·지원 분야의 시급성 및 필요성(10) |
| | | ·참여 인력의 전문성(10) |
|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10) |
| 혁신성 | 30 | ·경제성 및 시장 파급효과(10) |
| | | ·신규 시장 창출 및 매출 증대 가능성(10) |
| 양산 가능성 | 20 | ·제품의 시장 경쟁력(10) |
| | | ·사업화 실현 가능성(10) |
| 기업 역량 | 20 | ·신청 제품 관련 기술 보유 현황(20) |

0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기간
2022년 6월 27일~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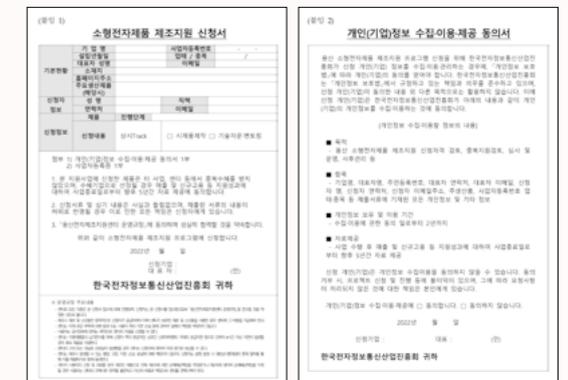
신청 방법
전화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PCB 실장 데이터(Gerber, BOM, 좌표), 지원신청서

신청 접수 및 문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제조지원센터
yes@gokorea.org 070-5088-0218

06

지원신청서



새 정부 경제정책: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지난 6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비전 아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민간과 기업 중심의 성장, 공정한 기회 보장, 과학 기술 산업 육성, 국제 사회 연대 강화 등으로 구성된 정책 내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성장 방안을 살펴본다.

새 정부 경제 운용 목표

경제 운용 4대 기초

자유 공정 혁신 연대

자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

- ①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
- ②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
- ③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

공정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병행

- ④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단
- ⑤ 경제·사회 전반의 공정한 기회 보장

혁신 과학 기술·혁신이 선도하는 성장·미래 대비 기반 확충

- ⑥ 과학 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 조력자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
- ⑦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
- ⑧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방위적 체질 개선

연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 사회와의 연대 강화

- ⑨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
- ⑩ 국익·실용의 관점에서 경제 안보 등 국제 사회와의 연대 강화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규제 개혁

규제비용감축제 '원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도입
규제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

*원인 투 아웃 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 것

법인세 개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현재 4단계) 단순화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기업승계 특례

납부유예제도 신설해 기업승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

연금 개혁 추진

공적연금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반기) 및 공적연금 개혁 추진

사적연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퇴직소득세 경감·근로장려세제 확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퇴직소득 5,000만 원의 경우, 10년 근속 시 50%↓, 20년 근속 시 100%↓)
근로장려세제 재산 요건 완화(2억 원 → 2.4억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0%** 수준 인상

재정제도 혁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사회기반시설^{SOC}·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500억 원 →
1,000억 원으로 상향

자료 기획재정부

SUMMARY

- ① 시장경제제도와 다원적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성장의 핵심
- ②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자유시장연구원장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전 고려대·건국대 교수, 전 한국국제금융학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향한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자유'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유대한민국 재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장경제의 자유가 가져올 기업의 성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류 역사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성장 스토리였다.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 경제체제야말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장경제란 경제 활동의 자유는 물론 사유 재산권·법치가 보장되고, 노사 간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으며, 가격과 분배가 수요 공급의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인류는 17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과 애덤 스미스 Adam Smith의 <국부론>(1776년)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기본적인 경제체제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카를 마르크스 Karl Marx의 <공산당 선언>(1848년), <자본론>(1876년) 출간과 블라드미르 레닌 Vladimir Lenin의 <러시아 공산혁명>(1917년) 이후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등장하면서 70여 년 동안 체제 경쟁이 지속되었다.

이른바 냉전 1.0이다. 그러나 결국 경제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법치보다는 전체주의가 지배하고, 가격과 분배가 수요 공급의 시장보다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의 비효율이 극대화되면서 1989년 동유럽이 붕괴되었다. 이에 더해 1990년 구소련마저 무너지면서 체제 경쟁은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라는 말도 등장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1992년)을 발간하며 이제 인류의 체제 경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로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인간 본성에 맞는 시장경제

왜 이런 역사의 종언이 왔을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개개인 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기에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지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자녀들까지 잘살 수 있다는 동기와 희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한 것이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간파한 것이 바로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 MIT 경제학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가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년)라는 책이다. 이 명저는 30여 명의 연구진들이 15년간 동서고금의 경제사를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위대한 업적이다. 국가가 생산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 활동에 동기가 부여되는 경제 활동의 자유, 사유재산권과 법치가 보장되는 제도가 중요한데, 이를 '포용적 경제제도'라고 했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제도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2012년 방한 당시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10개만 더 있다면 선진국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많을수록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역사는 개인과 기업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시장경제제도와 그 시장경제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다원적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고는 국민이 잘사는 선진국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다.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자유

1700년대 중후반에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은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로크 John Locke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이후 개인의 재산권, 특히 특허권이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다. 이후 약 100년간 유럽에서는 생산 기술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 중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자유의 확산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전 세계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별다른 증가 없이 빈곤한 생활이 내내 지속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실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스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애스모글루 교수가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밝혀낸 책이다. 정치와 경제, 역사를 아울러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요인에 정치적 선택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소득이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 급증하는 이른바 '대풍요의 시대'가 열렸다.

반대로 자유를 제약당하면 빈곤을 초래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1917년 레닌의 러시아 공산혁명에 의해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중국에서는 마오이즘이 등장하며 1949년 공산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었다.

그 후 공산주의는 동유럽, 쿠바, 북한 등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핵심은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것이다. 혁명 이후 가장 먼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집단노동을 하며, 똑같은 배급 생활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가 사라진 것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이상사회로 가는 길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대약진운동'을 실시했지만, 보고되는 생산량은 증가하는 데도 실제 생산량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기근이 확산되어 약 3,000만~4,000만 명의 사람들이 대약진운동 기간 중 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덩샤오핑이 등장해 개혁 개방으로 오늘날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대국 중국을 건설했다.

1975년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수립된 통일베트남도 공산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자유주의 인사들을 노동캠프로 보냈고, 이를 피해 도망친 많은 사람은 보트피플 Boat People*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자 10여 년 후 개혁개방을 통해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주

민들은 '고난의 행군' 등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중국이 부상하고 지고 있던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 재등장하면서 세계는 다시 양분되고 있다. 이른바 냉전 2.0이다.

자유 시민을 향한 새 정부의 노력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강력한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천명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인류 역사를 회고했다. 자유가 번영을 가져왔다고 회고한 부분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번영한 역사적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경제에서 주장하는 경제 활동의 자유, 사유재산권과 법치가 보장되고 노사 간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야 한다. 규제 시스템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영국 테크유키 TechUK와 같이 기업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수탈적 조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 식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2,300여 형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주주의결권 제한, 감사위원회 분리선임제도 등을 개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독점금지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사 간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구시대적인 '근로기준법'을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으로 대체하고 파견규제 합리화와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 환경 구축,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의 탄력 적용, 해고자 및 실업자도 유급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무소불위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불법 파업 엄단도 추진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가 주목된다. 이렇게 될 때 한국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면서 추락하고 있는 성장 동력을 반등시켜 한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탄탄하게 올려놓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 새 정부는 지난 6월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목표로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자유 시민'을 강조하며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한다"고 주장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새로운 냉전 2.0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제안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Liberal Internationalism',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자유 속에서 기업 경제 활동의 자유도 신장할 수 있다. 때마침 한국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과 국민의 경제 활동의 자유가 신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기대해본다. by

*보트피플

선박을 이용해 해로로 탈출하는 난민을 뜻하며, 1974년 베트남전쟁 전후로 발생한 난민들이 조국을 떠난 것이 시초가 되었다.

SUMMARY

- ①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성장 잠재력 회복과 확충
- ② 조속한 보편적 민간주도성장 계획의 정책화 필요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관,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어퍼컷 경제'를 기대하며

'민간주도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장기화, 저성장이라는 악조건을 향한 결정적 어퍼컷을 날려야 할 때다.

개항 이후 150년을 선진화의 시대로,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을 자유 가치의 완성화로, 2017년 이후 5년의 공정·정의의 재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윤석열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정책기조로 출범했다. 성공한 지도자들은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전략 전술로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주도해 왔다.



민간주도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성장 잠재력 회복·확충'이라고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침체, 인플레이션 장기화, 저성장'이라는 상대방에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어퍼컷을 날려야 할 때인 것이다.

민간의 역동성 넘치는 나라를 위한 결정타

권투의 네 가지 주먹 기술 중에, 잼은 단순히 운동에너지로만 따지면 스트레이트나 훅에 비해 약하고, 펀치 궤적상 가장 느리고 짧은 편이며, 연타 공격이 어렵다. 그러나 급소인 턱을 노리는 어퍼컷은 뇌가 흔들리며 경추와 신경까지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어퍼컷 한 방

에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4전5기 신화 홍수환 선수의 극적인 역전승도 통렬한 어퍼컷 한 방으로 탄생했다. 권투에 입문하면 당장 글로브를 끼우고 샌드백을 두드리게 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숙달하게 하는 것은 스텝과 풋워크다. 주먹에 힘을 실어주고 상대방의 펀치를 피하는 민첩성을 습득하는 가장 근원적인 훈련을 해야 그 다음 가드하는 법을 배우고 샌드백 앞에 설 수 있다. 제대로 어퍼컷 한 방을 날리려면 이러한 기초 역량을 쌓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초일류 경쟁의 링 위에 정부 대신 민간기업을 올려놓으려 한다. 그러려면 제대로 훈련을 받고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 스케줄을 짜야 한다. 권투선수가 시합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체중 조절이다. 민간기업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모래주머니부터 없애야 한다. 대대적인 탈규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규제는 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철폐의 대상이다. 권투에서 가장 필요한 스텝과 풋워크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1세기 기업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다.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맹이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본질적인 문제다.

어퍼컷을 잘 구사하는 복서들의 공통점은 아웃 복싱보다는 인파이터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링에서도 결정적 어퍼컷을 날린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 인파이터들이다. 노란 조끼 시위대에 밀려 퇴진 위기에 놓였던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감세정책으로 52년 만에 최고의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게르

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노동 개혁,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감세정책으로 민간의 역동성을 대폭발시키는 한 방의 어퍼컷을 구사한 인파이터들이었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일이라는 확신과 지지율, 선거 악재라는 유불리에 연연치 않았던 용기에서 나온 어퍼컷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어퍼컷이 결정타가 되기 위해서는 급소가 어디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노동 시장 유연화를 포함해 민간의 역동성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스피드 훈련부터 다시 해야 한다.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은 1979년 취임 나흘 만에 능률기획단을 구성해 정부의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는 향후 영국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정부의 관리 방식을 바꾼 것이었다.

열린 정부, 책임지는 정부, 국민과 기업에 가까운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일관성 있고 전략 있는 정부가 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고금동서를 통해 성공한 정책은 수백만 가지이나 하나의 공통점은 국민과 민간기업의 심장이 먼저 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이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 밝혔었다.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U벨트 전략,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공화국' 등 보편적 민간주도성장 계획의 정책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SUMMARY

- ① 전통 기업에 맞는 DX 전략 수립 기대
- ② 기존 보유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능력 개선 필요



박진우 한국공학한림원 기술경영분과 원로회원
전 산업지능화협회 고문, 전 (재)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과학 기술과 혁신이 선도하는 미래

정부는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과학 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미래를 선도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을 살펴본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전략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DX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현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성장, 공정한 기회 보장, 과학 기술 산업 육성, 국제 사회 연대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과거 민간 사업이 정부 주도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예산 규모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현상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 특히 제조업의 미래와 관련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조업에 역점을 두겠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아

이디어는 서비스, 의료, 보건, 농업 등 모든 업종,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의 시대

현재의 대한민국 제조업과,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를 비교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 있다. 세계 5대 제조강국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대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명성을 떨치고 있다. 미래는 어떻게? 쉽

지 않아 보인다. 거시경제의 기본인 인구나 임금 수준을 보면 대기업 임금은 일본보다 높고, 한편으로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노동인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저임금과 불공정거래로 추격해 오는 중국, 기타 개발도상국의 도전에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을까? 게다가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전쟁, 세계 공급망 재편 등 정말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는 현시점에서 과거 산업혁명 때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듯하다. 당시 산업혁명기에는 여러 혁신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시대였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컴퓨터, 통신, 인공지능^{AI}, 인터넷, 위성통신, 유전체 기술 등 여러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AI를 생각해보자. 1970년대 시작된 이후 AI 분야는 여러 번의 부침을 겪어 왔다. 예를 들어 전문가 시스템, 퍼지 로직 등 과거에 큰 기대를 받았다가 지금은 거의 잊힌 AI 기술이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AI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라는 AI 바둑 프로그램의 대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바둑에서는 아직 사람이 앞서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알파고의 능력이 너무 대단했던 것이다. 알파고는 의사결정나무 탐색이라

는 과거에 존재했던 알고리즘과 200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머신러닝'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알고리즘에 과거의 수많은 기본 자료를 입력해 교육시킨 후 1,202개의 '중앙연산장치CPU'와 176개의 연산 전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연결시켜 이 9단과 대결시킨 장치다. '머신러닝'은 순수한 AI의 영역이지만 알파고에는 새로운 컴퓨터 기술이 많이 활용되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1,000개 이상의 컴퓨터 센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바둑기사 한 명과 대결한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해당 회사는 주가가 상승으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한다.

창업 벤처 인재에게 열린 다양한 기회

최근 AI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다른 부분도 기여했다. 기업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전사적자원관리^{ERP}나 생산관리시스템^{MES}, 그리고 무선인식 기술인 RFID* 기술로 데이터가 풍성해졌고 여기에 새로운 통신 기술인 OPC-UA*를 통해 데이터 공유가 쉬워졌다. 그러나 이는 또한 현재 AI 응용 분야의 현실도 보여주고 있다.

즉, 데이터가 풍부한 자연어나 시그니처, 그리고 사진 인식, 품질, 비전, 설비관리 등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외의 영역은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서 다른 응용 분야도 생각할 수 있다. 드론 운행이 가능해진 것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과 컴퓨터 성능 개선에 힘입은 것이다. 항공운송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의 알고리즘

*RFID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 시스템이다.

*OPC-UA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장비와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 표준 통신 프로토콜.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원가 

품질 

납기 

신제품 개발 기간 

구현이 '가볍고 싼 컴퓨터'로 가능해졌다. 더욱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을 통해 위치 추적도 쉽게 가능해져서 드론의 응용은 더욱 가속이 붙게 되었다. 새로운 컴퓨터 기술과 신기술 배터리, 그리고 위치 추적 기술을 응용해 생활에 편리한 제품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 이동장치도 생각해봄 직하다. 우리나라의 촘촘하고 편리한 지하철과 개인별 이동장치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젊은 인재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해본다.

게다가 최근 국내에는 젊은 창업 벤처들의 우수한 제품도 많이 목격되고 있다. 전류계를 응용해 현장의 작업 형태와 품질을 추적하는 기술, 실시간 재고 관리를 위한 비전 시스템, 개인별 업무 내역 추적·기록 장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등 깜짝 놀란 좋은 기술들이 시장에 포진되어 있다. 이들 기술들을 활용하면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탄소 배출 감소 및 원자력발전 기술과 함께 스마트시티, 농업, 의료, 이동, 안전, 관광, 학습 등 모든 영역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과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도 돌파구 중의 하나로 보인다.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기업의 핵심은 디지털 신제품이다. 즉, 10여 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만으로 창업해 크게 성장한 것이다. 이들 기업의 DX는 디지털 신제품이다. 이런 신생 기업들도 있지만 전통 기업도 디지털 신

제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 기업은 기존 업무 영역을 놓을 생각도 전혀 없다. 어떠한 DX가 가능할까?

스마트공장도 이들 DX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DX를 다양하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장 기초 단계인 연결(Connected) 영역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은 제어(Controlled) 단계를 넘어 최적화된(Optimized)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성과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추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프로세스 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업 경쟁력은 크게 네 가지, 즉 원가(Cost), 품질(Quality), 납기(Delivery Time), 신제품 개발 기간(Development Time)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생산요소는 5M을 생각하면 된다. Man(맨파워), Machine(설비), Material(재료), Method(프로세스 또는 방법), Measurement(측정치, 경영 성과)가 그것이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1990년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던 일본 기업들의 CQDD를 벤치마킹하며 5M의 수준을 일본 이상으로 끌어올려 오늘날과 같은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다. 업무 개선은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과거에는 대기업들도 외부의 유능한 컨설턴트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나의 주 업무



컴퓨터 기술 발전의 응용 분야 드론 운행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과 컴퓨터 성능 개선으로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다른 산업 분야와 접목해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인데 외부인인 당신이 얼마나 알겠는가?' 하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 설정,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갖춘 CEO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적정 자동화, 최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자동화나 정보화 시스템은 아무리 잘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노사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쉽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이득을 같이 나눔으로써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CE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CEO 혼자만의 힘으로 조직을 모두 변화시킬 수는 없고 우수한 내부 인력이 현장에서의 변화를 제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기존 보유 인력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듯싶다. 국가에서도 지역별 거점 대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사업에 과도할 정도로 큰 예산을 쏟고 있다. 겉보기식 참여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 참여와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도 인재 육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지원의 컨설팅 사업도 인재 육성과 프로세스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시장은 고품질·고가격의 일본, 독일 등과 저품질·저가격의 중국, 인도가 양분하고 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중가격의 제품을 출시한다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제법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호상선(주) 대표

32년 동안 해상화물운송 외길 국적 중견 선사로 발돋움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국제적인 해상 운송난은 해운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해운이 원활하지 않으면 국제 거래가 마비되고 대규모 제조업 공장마저 멈춰 버린다. 마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하던 사람이 중병에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 해운업(Marine Transportation Business)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사업으로, 인체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항해운은 내륙 육상 운송수단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외항해운은 수출입을 촉진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 해운에는 해상여객운송, 해상화물운송, 해운중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대호상선은 중형 선박을 이용한 벌크제품의 국내외 해상화물운송이라는 틈새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시청 뒤편에 자리한 대호상선 본사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에 20여 장의 선박 사진이 붙어 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이다. 박홍득 대호상선 대표(회장)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모두 21척”이라며 “이들이 일본을 비롯해 중국, 동남아시아 일대를 누비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적재 톤수 기준으로 1만1,461톤의 제니스로열호를 비롯해 7,142톤의 제니스부산, 6,719톤의 제니스퀸, 6,700톤의 제니스오로라 등이 포함된다. 주로 2,000~1만여 톤급의 화물선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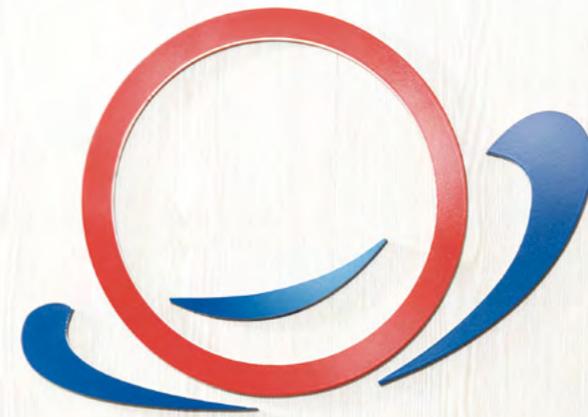
이들은 철판, 철강재, 코크스, 시멘트 등을 싣고 바다를 누빈다. 이 중 외항선이 7척, 국내 연안 운송선이 14척이다. 주된 고객은 국내외 철강제조 및 관련 기업들로 이들과 장기 계약

을 맺고 화물을 운송한다. 철강제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사업장으로 운송하고, 원자재를 수입해 공급하기도 한다.

예컨대 제철소에서 코일과 후판을 소비하는 업체 소재의 항구로 운송하기도 하고, 시멘트를 동해안에서 서해안 수요처로 나르기도 한다. 국내 철강재를 일본의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지로 보내기도 하고 일부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동남아의 여러 항구로 수송하기도 한다.

준비된 경영으로 꾸준한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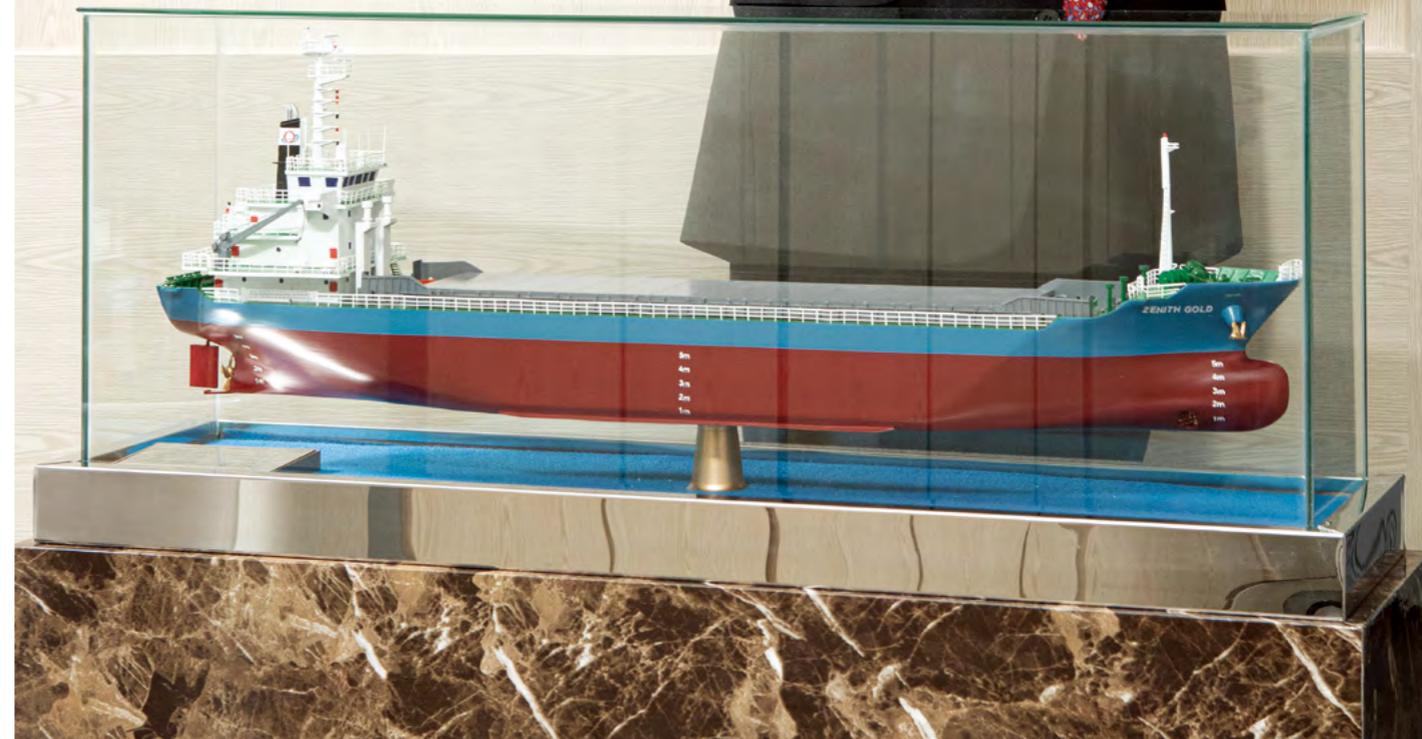
대호상선은 최근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289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1년 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 새 73%가 늘었



大護商船株式會社
DAEHO SHIPPING
SINCE 19

박홍득

대호상선(주) 대표





다. 여기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준비된 경영이다. 1990년 설립된 대호상선은 32년에 걸친 노하우를 토대로 매사에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 법대를 나온 박 회장은 주위의 권유로 해운업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운항 공무, 해무 관리 등 여러 분야의 일을 했는데 남자로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적성과도 잘 맞았다.

1976년 첫 해운 회사에 입사했으니 직장생활과 창업을 포함해 전체 해운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은 46년에 이른다. 1990년 2월 대호상선을 창업했지만 전 직장에서의 마무리할 일이 생겨 대표이사는 1992년에야 취임했다. 그 뒤로 30년째 대호상선을 이끌고 있다.

중소기업 중 30년이 넘는 기업은 흔치 않다. 특히 한 우물을 파며 외길을 걸어 왔다. 이 과

“중소기업 중 30년이 넘는 기업은 흔치 않다. 특히 한 우물을 파며 외길을 걸어 왔다. 30년간 운영해 오며 이제는 연간 400여만 톤을 수송할 만큼의 규모를 갖춘 내항 전문 회사로 발돋움했다.”

정에서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격랑을 헤쳐 왔다.

박 회장은 “우리는 해상화물운송 전문 국적 외항선사로서 올해로 32년의 오랜 역사와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해상화물 분야에 있어 정확하고 안전한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선사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대호상선은 설립 초기 국제선박 대리점 업무와 선박관리업으로 시작했고, 점차 안정적인 선박 운항과 선대관리의 효율화 등 해상운송 부문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춰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99년 12월 대한민국 국적 외항화물 운항선사라는 명실상부한 선박 회사로 거듭났고 현재는 대리점, 선박관리, 외항선박 운항 등 종합 해운 회사로서 대표적인 국적 선사로 발전했다. 또한 외항화물운송 사업뿐만 아니라 내항화물운송 사업의 중요성도 인식해 1995년에 내항화물운송 회사인 금진해운을 설립했으며, 그동안 30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이제는 연간 400여만 톤을 수송할 만큼 규모를 갖춘 내항 전문 회사로 발돋움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호상선은 해운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미리 선박을 발주해 왔다. 2010년 이후 도입한 선박만 전체의 절반인 11척에 이른다. 지난 7월 8일에도 새로운 선박 한 척이 도착했다. 이런 선박 확보와 더불어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운송 확대가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박 회장의 준비경영은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외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장부를 보여주며 “회사가 보유한 외환액과 앞으로 매년 발주할 신조선에 쓰일 결제대금을 미리 대조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뢰로 쌓은 기업의 내실

둘째, ‘신뢰경영’이다. 박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거래처와의 신뢰를 지킨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창업 초기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의 창업자금은 단돈 800만 원이었다. 이 자금으로 해운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뜻밖에도 친하게 지내오던 일본 규슈에 사는 일본 기업인이 “선박 2척

을 내줄 테니 이것으로 해운업을 한 뒤 천천히 벌어서 갚으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왔다. 일반 직원이었던 박 회장의 행실을 유심히 지켜본 이 일본 기업인은 “박 회장은 틀림없는 사람”이라며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 작은 배 2척이 대호상선의 시작이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화주와 윈윈 Win-win 전략을 썼다. 박 회장은 “아무리 해운 경기가 좋아도 운임을 함부로 올리지 않고 화주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생하는 전략을 썼다”고 설명했다. “실사 손해를 보더라도 화주와 맺은 약속은 지킨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호상선이 주로 화주와 장기운송계약 Contract of Affreightment, COA을 맺고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기운송계약은 대량의 화물을 가진 화주와 선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선주가 특정 화물을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으로 운항하는 형태다. 박 회장은 “장기운송계약은 해운 시장이 호황이어도 화주에게 화물운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고, 불황이어도 일정한 수익이 계속 선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선주와 화주 양쪽에게 장점이 있는 계약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호상선은 국내외 철강 회사 및 상사와의 다각화된 장기운송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철광, 철광석 등 원자재 수송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뢰경영은 화주와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은행과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대부분 일본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지

만 창업 초기엔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신조선 발주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는데 해당 중국 조선소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선가를 여러 차례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며 “몇 달간 고심 끝에 결국 계약 위반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고 동시에 거래은행으로부터 얻어낸 여신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여서 기업이 먼저 여신 취소를 요청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런 조선소와의 거래는 아예 중단하는 게 낫다며 거래은행에 찾아가 여신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당시 은행 지점장이 당시 같은 사람은 흔치 않은 기업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리조선소를 통한 안전 운송

마지막으로, 대호상선의 지속적인 성장의 이유는 수리조선 사업을 겸해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다. 대호상선은 해운 회사로서는 드물게 수리조선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박 회장은 “국내엔 중소형 수리조선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선박 수리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술인력 부족과 기술 단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호상선은 현재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기 외항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적 증건 선사로 자리 잡았다.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제3국 간 운송을 확대하고, 화물의 안전 운송과 고객 만족을 위해 효율적이며 신속한 해상운



박홍득 회장의 기업 철학

1. 준비경영
오랜 시간 누적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펼친다.

2. 신뢰경영
고객은 물론 경영 전반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며, 신뢰가 곧 기업의 성장을 이끈다.

3. 안전경영
기술인력 부족과 기술 단절 악순환을 막는다는 사명감으로 수리조선소를 운영해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한다.



창업

1990년



업종

해운업(국내외 화물운송)



자사 보유 선박

21척



인원

300여 명



매출

500억 원(2021년)

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2세 경영

대호상선의 사업은 주력 사업 분야와 에이전시 서비스로 나뉜다. 우선 메인 비즈니스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다양한 항로를 통해 국내외 철강사의 철강제품을 운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항 부정기 일반 화물선으로는 철강제품을, 내항 부정기 일반 화물선으로는 철강제품 및 벌크제품(시멘트, 코크스 등)을 취급한다. 아울러 숙련된 국내의 대리점과 함께 신속한 업무 대응과 뛰어난 글로벌 정보통신 시스템을 바탕으로 에이전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메인비즈)’으로 선정되는 등 안정경영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 유지, 해상운송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신

속 안전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메인비즈는 ‘경영(MANAGEMENT)’과 ‘혁신(INNOVATION)’,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한다.

박 회장은 해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 바다의 날에 산업포장, 2006년 무역의날에 삼백만불 수출의 탑, 2007년 바다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그는 3·1독립운동기념관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그는 평생 무척 검소한 생활을 해 왔다. 또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대해 왔다. 하지만 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겠다며 3·1독립운동기념관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박 회장은 사업 확장과 안전관리 강화라고 말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매년 2~3척의 배를 발주해 5년 내 약 10척의 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벌크선은 국내 조선소가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국내 조선소는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고부가가치선인 액화천연가스(LNG)선 등을 주로 건조하기 때문에 이를 발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주로 일본 조선 회사에 발주해 배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선급으로 인정받은 국제안전경영코드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 운용을 통해 선박은 물론 선원들의 안전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리조선 사업을 활용해 선박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와 자체 선박관리 조직을 활용해 운송



- 2021. 02. 20**
서울 사무소 이전
- 2019. 11. 01**
‘제니스크라운 Zenith Crown’
국적 취득 조건부 선박 매입
- 2016. 09. 26**
‘제니스실버 Zenith Silver’
국적 취득 조건부 선박 매입
- 2014. 03. 06**
‘SNK러키 Lucky’
국적 취득 조건부 선박 매입
- 2012. 12. 12**
‘대호서울 Daeho Seoul’
선박 매입
- 2009. 11. 30**
‘제니스부산 Zenith Busan’
신조선박 매입
- 2007. 05. 31**
제12회 바다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 2001. 05. 31**
제6회 바다의 날
‘산업포장’ 수상
- 1999. 12. 28**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
사업 등록(해양수산부
등록번호: OST0047)
- 1999. 12. 16**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선박 도입
- 1996. 11. 06**
국제 해운 대리점 계약 체결
- 1994. 12. 02**
선박관리업 등록
(해양수산부: 제69호)
- 1992. 02. 17**
부산사무소 설립
- 1990. 02. 12**
회사 설립
(자본금 5,000만 원)



32년간 해운업 외길로 실력 인정받은 박홍득 회장 박 회장은 해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바다의 날에 산업포장, 2007년 바다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품질 향상과 선박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세 경영도 준비하고 있다. 아들인 박성건(44) 전무가 현재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부산 해양대에서 석사와 박사과정(해운경영)을 마친 박 전무는 2002년 입사해 국내외 영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다양한 곳을 다니며 새로운 영업망을 개척해왔다. 중국도 여러 항구를 다니며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마케팅을 해 왔다.

박 전무는 부지런한 점이나 매사에 적극적인 점, 신뢰를 중시하는 점이 부친을 빼닮았다. 박 회장과 박 전무는 대호상선을 중형 선박을 이용한 벌크제품의 국내외 해상화물운송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도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뛰고 있다.



신지영 한국ESG연구원 대표

대기업 ESG 전략·기획을 담당했으며, 다양한 현장과 실무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ESG 평가,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ESG 자본 시장

전 세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서도 ESG 금융에 대한 논의는 뜨겁고 앞으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늘은 그중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ESG 자본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중점사항을 살펴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행한 <2020 한국 ESG 금융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한국의 ESG 금융 규모는 492조 원이었다. 금융 상품 유형별로는 △ESG 대출이 184조 원 △ESG 투자가 188조 원 △ESG 금융 상품은 62조 원 △ESG 채권 발행은 59조 원이다. E·S·G 이슈별로는 환경^E이 72조 원, 사회^S가 219조 원, 지배구조^G는 0.2조 원, ESG 통합은 201조 원이었다.

IBK기업은행,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SLL 상품 출시
지난 2월,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상품을 출시했다. 'ESG 성공지원 대출은 현재 ESG경영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ESG에 기반한 경영 목표를 세우면 기업당 10억 원 한도, 최대 1%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PT}의 핵심성과지표^{KPI}로는 △(기업 운영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건물, 기계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취약계층(장애인, 만 34세 이하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선택 가능) 고용률 향상 △ESG 경영 공시 및

경영 윤리 체계 구축 등이다. 총 130개 기업에 SLL 확인서가 발급되어 대출 규모는 5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최초 K-ESG 가이드라인을 접목한 SLL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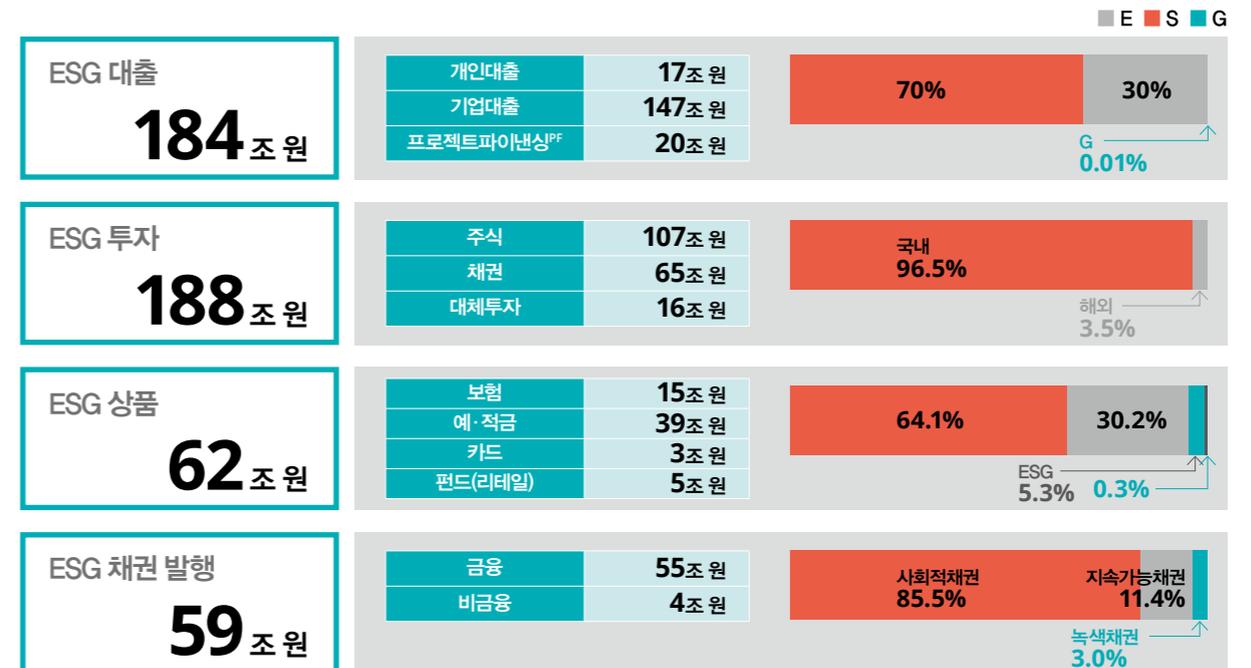
주요 5대 은행 ESG 대출 확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또한 ESG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 그린 웨이브 Green Wave ESG 우수기업대출', 신한은행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 우리은행 '우리 ESG 혁신기업대출', 하나은행 '그린론 Green Loan' 등의 상품이 출시되어 있고 각각 자체 평가 방식, 금리 혜택 등에서 차별화를 두었다. 가장 규모가 큰 대출은 NH농협은행으로 친환경 녹색 기업을 대상으로 한 'NH친환경기업우대론'을 내놓았으며 출시

8개월 만에 잔액 2조 원을 돌파했다.

NH농협은행의 해당 상품은 환경성 평가 우수 등급 및 녹색 인증(표지 인증) 기업 등 환경 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최고 1.5%포인트 금리 우대 및 대출 한도 우대를 지원하는 ESG 여신 특화 상품이다. 대상 기업체는 건설업, 화학제품·전기장비제조업 등으로 다양하며, 녹색 기술 인증, 환경성 평가 우수, ISO14001 인증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비해 관련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우대론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은행은 'KB 그린 웨이브 ESG 우수기업대출'을 출시했다. 글로벌 선진 은행의 SLL을 벤치마킹해, ESG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0.4%포인트



자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0 한국 ESG 금융백서>

를 제공하고, 시설자금 대출 한도를 우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출의 총 지원 한도는 1조 원이며, KB굿잡 취업박람회 참가 기업 선정 시 우대 혜택과 KB 와이즈^{Wise}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신한은행은 ESG경영 우수 기업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을 선보였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ESG 평가모형을 개발했는데, 평가모형은 대출·투자 대상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신한 ESG 평가모형', 해당 대출·투자의 영향과 지속 가능한 수준을 평가하는 '신한 지속가능모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ESG경영 우수 기업에 연 0.2~0.3%포인트의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우수 기업이 추천한 협력사도 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도 '우리 ESG 혁신기업대출'을 내놓으며 ESG 대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고, 하나은행은 1,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론'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속가능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주로 ESG 대출에 한정된 내용이나 ESG 투자, ESG 상품, ESG 채권 발행의 측면에서도 중소기업과의 연결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8년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에 이어 2021년 '지속 가능한 금융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ESG 금융의 동향과 전체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지속가능금융은 지속 가능

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상품·프로세스로서 사회·경제적 임팩트와 함께 환경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 활동으로 정의되며 ESG 금융으로 불린다.

위원회는 "기존의 지속가능금융 계획을 확장해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대상도 중소기업과 소비자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금융(ESG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환경 측면에서는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 사회 측면에서는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등이 해당되며,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스투어십 코드 등 수탁자 책무 강화,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강화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환경부에서도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ESG와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선불리 ESG를 멀리하기에는 금융 세계는 ESG와의 관계성을 더 밀접하게 맺어 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경로로 외부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을 넘어 중소기업이 ESG 실력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ESG 자本是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명확하고 직관적인 ESG 평가기준을 잘 지키는 기업이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투자 관점에서는 ESG를 더욱 강화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ESG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그 요소가 전사 차원에 얽혀져 있



K-택소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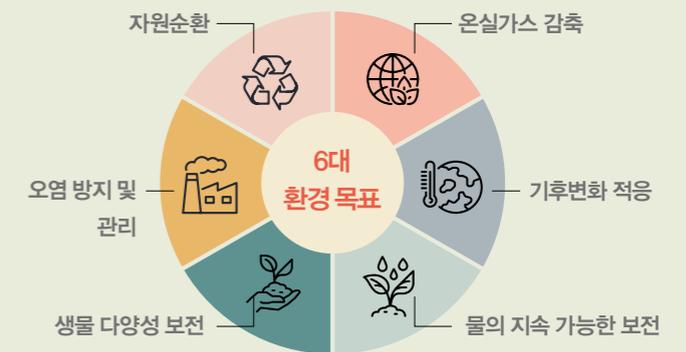
개념

6대 환경 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 활동의 분류

원칙

녹색 경제 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환경 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 ② 심각한 환경 피해가 없을 것 환경 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③ 최소한의 보호 장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주 국제 동향(EU 택소노미, ISO 택소노미 등의 6대 환경 목표 준용 자료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어 결국 경영 고도화를 위한 장기적 성장 로드맵이다. 이런 관점에서 ESG 리스크가 높은 기업은 곧 경영 체계성의 미달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재무건전성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자본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여신 프로세스,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등 ESG 금융 변화를 살펴 자본 운영 전략을 개편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by}



자료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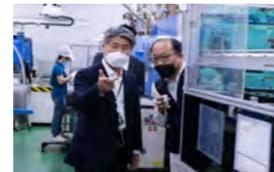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베트남 진출 확대 문제를 협의하고 현지 우리 중소기업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베트남 출장을 통해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인가 취득과 함께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금융 협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베트남은 약 5,6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신규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이미 2016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최대 진출 국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진출 기업 중 제조업 비중이 60%가 넘고, 약 84%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IBK기업은행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총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7년 설립한 지점을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인가를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IBK 진출 확대와 현지 기여 방안 논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출장에서 베트남 도안 타이 썬 중앙은행 부총재와 마이티 투 번 총리실 차관을 만나 IBK기업은행 진출 확대의 필요성과 현지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53%)과 비교해 36%로 낮은 편이고,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의 비중 역시 22%(한국 83%)로 매우 낮아 중소기업 금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진출 확대가 베트남 중소기업뿐 아니라 경제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베트남에서의 중소기업 금융 확대의 필요성과 IBK기

정보통신 기기 부품 제조 기업 인탑스(대표 김근하)



휴대전화 및 가전 제품 플라스틱 부품 사출·성형 제조사로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08년 2월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주요 제품은 휴대전화 후면 케이스, 코로나19 검사키트 케이스 등이다. 현지법인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조업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0년보다 17%나 성장한 높은 매출액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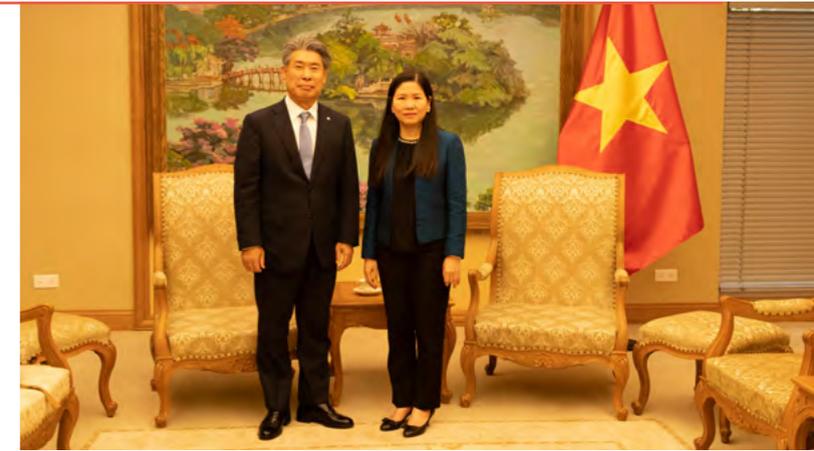
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많은 공감을 얻었다.

베트남 법인 설립의 필요성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 금융을 가장 잘하는 IBK기업은행은 다양한 지원 플랫폼과 거래 기반으로 진출 기업에 원활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60%가 제조업으로, 대부분이 박닌, 동나이 등 도시 외곽 지역 또는 하이퐁, 다낭 등 지방 공단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법인 설립 이후 해당 공단 지역에 점포를 개설해 외곽 및 지방 공단 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위해 양질의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한편 윤 행장은 이번 출장에서 베트남 최대 자산운용사인 비나캐피탈(VinaCapital)과 모험자



IBK기업은행의 베트남 현지 기여 방안 논의 윤 행장은 마이티 투 번 베트남 총리실 차관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의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 투자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베트남 총리실에서 현지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IBK기업은행의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내 투자 및 사업 기회 창출은 물론 한·베트남 창업 생태계 관련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IBK기업은행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은 물론 한·베트남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베트남 진출 기업 방문



도안 타이 썬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남을 가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윤 행장과 도안 타이 썬 부총재는 이번 만남을 통해 베트남 내 IBK기업은행 진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바일 부자재 제조 기업 서원인텍(대표 김재윤)



1983년에 설립한 휴대전화, 태블릿 케이스 등 모바일 기기 부자재 제조사로 2009년 4월

베트남에 진출했다. 휴대전화, OA 및 정보통신 기기 부품 사업 분야에서 고품질 제품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모바일 키패드를 주력 제품으로 하다가 스마트폰 액세서리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지속해 스마트폰 케이스와 태블릿 케이스 등의 액세서리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

가전제품 부품 생산 기업 대영전자(대표 백서재)



1993년 설립 이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5월 베트남에 진출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자연기승 공기청정기를 선보이며 부품에서 완제품을 아우르는 전자 회사로 한 단계 도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오천만불 수출의 탑' 등을 수상했다.



핵심 기술
3D 라이더, IoT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위치정보산업 시장 성장률
(2022~2026년)
26.84%



2022년 매출(예상)
70억 원

대전 2기

(주)와따

김민규·김경식 대표

AI 클라우드 공간관리 플랫폼



GPS가 닿지 않아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지하 및 실내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의 부정확한 위치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이브리드 공간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한 객체 인식 그리고 다양한 IoT 센서 데이터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 통합 관제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클라우드 공간관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와따는 핵심기술인 3D라이더를 활용한 지도 생성, 객체 인식 및 추적,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산업별 특화된 데이터셋 학습 및 최적화, 3D 지오픈스 등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2 2개 부문 혁신상 수상과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 IT 박람회인 WIS 2022에서 대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끊임 없는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와따는 이러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제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따의 비전은 '데이터를 통한 지속적 가치 창출'입니다. 산업별 최적화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물류·공정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Start-up Introduction

2019년 설립된 위치 정보 플랫폼 기업으로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이 닿지 않는 공간이라도 정확한 위치를 제공한다. 최근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CT) 전시회 '월드 IT쇼 2022'에 참가해 솔루션 중 하나인 '3차원 3D 라이더LiDAR 공간 안전관리 솔루션'을 선보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하며 혁신성을 입증받았다. 이후, 안전관리를 우려하는 기업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IBK창공^{IBK}은 '창공^{IBK}을 통해 창공^{IBK}으로 비상하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IBK}공장^{IBK}'의 줄임말로, IBK기업은행이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부산 2기

(주)모라이

정지원 대표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솔루션 기업



대학원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면서 실제 차량을 기반으로 도로에서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시장에 자율주행에 특화된 시뮬레이터가 없었기에 R&D에 최적화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면 시장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거죠. 현재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 개발 분야입니다.

모라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자율주행차의 인지, 제어, 판단 전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알고리즘이 개발된 의도대로 작동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모라이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고성능 3D 그래픽 엔진을 이용해 현실 세계의 복잡한 교통 상황, 다양한 기상 상황과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까지 수용해 사실적이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가상의 도로 환경을 구현해줍니다.

모라이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와 인재 충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인증 툴을 위한 국제표준기구(ISO)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 설립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독일,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Start-up Introduction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기업 모라이의 자동화 기술은 95%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 규모의 도시를 하루 정도 시간 내에 구현할 수 있다. 실제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10cm 수준의 정밀도를 갖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했다. 현재 모라이 시뮬레이션 플랫폼 'MORAI SIM'에는 서울, 판교, 대구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도 제작 파트너사와 협력해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전 세계 20여 개 지역이 구축되어 있다.



핵심 기술
정밀지도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자동 변환



2031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솔루션 시장 규모(예상)
29억140만 달러



2022년 매출(예상)
1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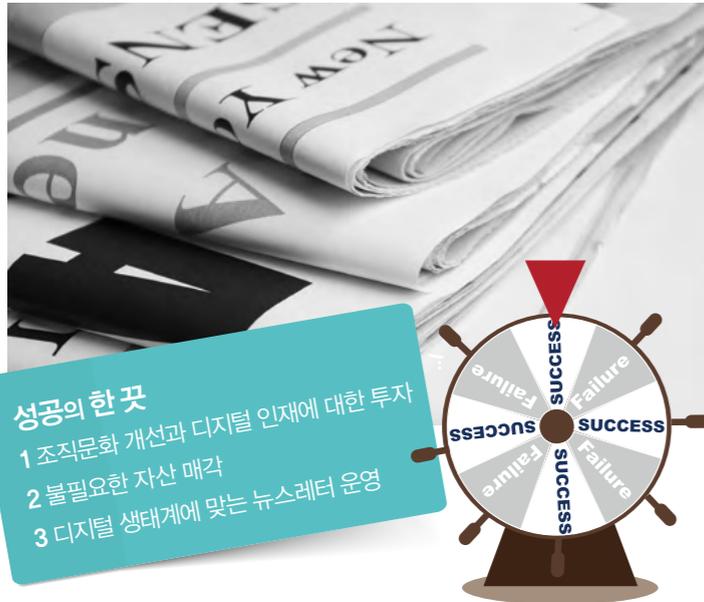
민병운 (주)테미스코프 리서치앤컨설팅 대표이사
광고학 박사, 서강 트렌드 사이언스센터 선임연구원이며, 저서로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 등이 있다.

만성 위기의 시대, 극복해야 살아남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외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제 '만성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이런 시대에는 결국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이에 대해 글로벌 컨설팅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위기 극복 능력은 조직문화, 재무 관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에서 나온다고 했다.

성공 사례

디지털 전환으로 위기 극복한 미국의 N 신문사



- 성공의 한끗**
- 1 조직문화 개선과 디지털 인재에 대한 투자
 - 2 불필요한 자산 매각
 - 3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뉴스레터 운영

미국을 대표하는 N 신문사는 인터넷 언론에 밀려 구독자가 감소하고 광고까지 줄어들면서 경영 위기에 몰렸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신문 배급도 원활하지 않자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N 신문사는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 개선에 성공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조직문화 개선과 디지털 인재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 N 신문사는 종이 신문에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인력

을 대폭 충원했다. 단순히 정보기술(IT) 인력만 충원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등 기존 기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인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것은 N 신문사의 가치가 '고급 저널리즘'에 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고품격 뉴스 콘텐츠 제작이라는 근본이 탄탄해야 그 바탕 위에서 디지털 상품 유료화의 성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불필요 자산을 매각했다. N 신문사는 한때 복합 미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거치며 36개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언론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허울만 좋은 큰 몸집은 과도한 부채만 남길 뿐이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는 의사결정과 업무 프로세스 모두 효율을 추구해야 하는데, N 신문사의 조직은 그에 비해 너무나 비대해져 있었다. 결국 N 신문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4개의 핵심 기업만 남기고 모두 매각했다.

셋째,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콘텐츠 전달 방식을 도입했다. N 신문사는 종이 신문의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유료 구독자 중심의 뉴스레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넘쳐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디지털 시대에 구독자들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뉴스를 선별해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독자들은 N 신문사의 맞춤형 뉴스레터 제공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다. 어차피 모든 뉴스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N 신문사의 큐레이팅과 뉴스의 깊이는 신뢰할 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잘 융합시킨 N 신문사는 디지털 개선에 성공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실패 사례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영국의 B 방송사



영국을 대표하는 B 방송사는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은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스트리밍 영상 시청에 몰입할 뿐 기존 방송사의 콘텐츠는 잘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B 방송사는 자사 직원들이 각자 영상을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첫째, 조직이 따라가지 못한 채 디지털 도입에만 급급했다. B 방송사는 자신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 '디지털'에만 있다고 봤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과 인프라 도입에 많은 공을 들였다. 전 직원의 PC에 영상 편집 툴을 설치해주었고, 이를 B 방송사 채널에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하지만 B 방송사의 직원들은 영상을 편집하고 공유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준 높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의사결정을 거쳐야 했던 기존 관행 때문에 콘텐츠의 시의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 즉, 기술만 도입됐을 뿐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도, 그 기술을 통해 콘텐츠를 과감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 조직적 관리 역량도 부족했다.

둘째, 디지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재무 관리에 미흡했다. 많은 방송사가 그렇듯 B 방송사 역시 크고 작은 방송사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큰 규모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방송사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큰 규모가 주는 장점보다 비효율로 인한 단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유튜브와 OTT에 비해 타이밍이 늦은 B 방송사의 콘텐츠는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방송사는 비대한 조직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며 엄청난



- 실패의 한끗**
- 1 디지털 전환을 따라가지 못한 조직
 - 2 디지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재무 관리 미흡
 - 3 유튜브 따라하기에만 급급했던 솔루션

난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셋째, 경쟁이 더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진입했다. B 방송사가 도입한 디지털 시스템은 사실상 사내에 유튜브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다 보니 B 방송사의 경쟁사는 유튜브와 OTT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아닌 더 심각한 경쟁 시장으로의 돌입이라는 악수가 되었다. 방송사의 핵심 역량은 콘텐츠여야 하는데 플랫폼 도입에만 신경 쓴 것이다. 그래서 언론사가 플랫폼사와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다. 유튜브 생태계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튜브 따라하기에만 급급했던 B 방송사의 솔루션은 특별한 성과 없이 약 1,500억 원의 자산 감소를 불러왔고, 디지털 시스템 도입은 전면 취소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미래 운송수단 하이퍼루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하이퍼루프(Hyperloop)가 주목받고 있다. 진공 튜브에서 시속 1,200km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하이퍼루프는 글로벌을 일일생활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일일생활권이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바로 KTX라는 고속철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이후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인가? 서울과 부산을 2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초고속 시대를 넘어서 서울과 일본 도쿄, 서울과 중국 베이징을 출퇴근하는 글로벌 이동 시대가 될 것이다. 바로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시속 1,200km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미래의 문 앞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하이퍼루프의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전 세계 주요 고속철도 및 자기부상열차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서 대변혁은 2004년에 일어났다. 비둘기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라는 시속 150km 이하의 저속철도 시대를 청산하고, KTX라는 시속 300km의 고속철도 시대

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이 프랑스 TGV로부터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할 당시에 중국도 일본의 신칸센(新幹線) 기술을 도입한 CHR2, 독일 ICE 기술을 도입한 CHR3,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한 CHR4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2002년 중국 자체 기술로 시속 270km까지 운행이 가능한 중화지성(China Star)을 개발하며 중국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3년부터 중국은 독일의 대표적인 자기부상열차 회사인 트랜스라피드(Transrapid) SMT사로부터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해 푸둥 공항에서 상하이 중심가까지 30.5km 거리를 최고 시속 430km로 운행하며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

고속철도에 미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서, 필자에게는 상당히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이 있다. 바로 땅이 넓은 미국에서 고속철도나 자기부상열차를 만들지 않는 이유였다. 고속철도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일 지멘스(Siemens)가 제작하는 ICE 고속철도, 일본 산요(Sanyo) 및 도카이도 Tokaido가 만드는 신칸센, 프랑스의 알스툼



배진웅 동신대 전기자동차학과 교수
전 특허청 사무관, 전 삼성특허 변리사였으며 현재 동신대 전기자동차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lstom 및 SNCF의 TGV 고속철도가 있다. 한국은 프랑스 알스툼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대 로템에서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이퍼루프 개발을 발표했다. 머스크 CEO는 한 언론과의 만남에서 하이퍼루프를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미래를 기대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공학박사이자 특허전문가인 필자의 관점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국가인 이유는 바로 남과 유사한 방식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완전하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도전하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고속철도 분야에서도 그 새로운 도전의 결과물이 바로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이퍼루프는 기존 고속철도와 무엇이 다른가?

하이퍼루프가 기존 고속철도와 다른 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지름 2m의 진공튜브 내에서 이동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
- ② 기존 고속철도보다 작은 폭 1.35m, 높이 1.1m의 크기로 설계해 2000년 이상의 철도 표준을 파괴한다.
- ③ 회전형 전동기가 아니라 선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해 가속력이 우수하다.
- ④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시속 1,280km(800마일) 음속 수준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Hyperloop Transportation Technology, HTT)사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특허로 제시해 실현하고 있다. 첫째, 튜브(Tube)의 안정화 기술이다. 하이퍼루프 튜브의 안정화 기술은 시속 1,20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다. 둘째, 튜브 자기치료(Self Healing) 기술이다. 하이퍼루프사는 예상치 못한 튜브의 손상을 자기치료 하는 기술을 미국 공개특허로 제안했다. 셋째, 공기 감속기(Air Bag) 기술이다. 하이퍼루프 캡슐은 최고 시속 1,280km로 이동하며, 캡슐을 정지시키기 위한 감속 기술을 제안했다. 인공위성, 통신용 안테나, 하이퍼루프 캡슐의 안테나 및 하이퍼루프 튜브의 안테나는 서로 통신을 통해 하이퍼루프 캡슐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기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하이퍼루프는 현재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 간 560km 거리를 30분에 도착할 수 있는 노선을 건설 중이며, 이 밖에 총 11개의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도 하이퍼루프를 강력하게 도입하려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가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150km 거리의 두바이-아브다비 구간을 12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노선을 계획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520km의 자카르타~요그야카르타리 구간을 2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노선을 계획 중이다. 대한민국도 서울~부산 노선을 확정하고, 2029년 사업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기술원을 중심으로 HTT사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USA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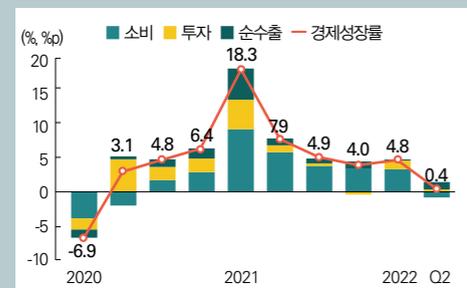


주 전월 대비 자료 Fed·미국 인구조사국

물가 급등·생산 위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 확대되었지만 소비 증가로 다소 완화

미국 경제는 물가 급등과 생산 감소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하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산업생산은 제조업 재고 증가로 인해 생산량 축소 압력이 커지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0% 증가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기도 했으나, 소매판매 증가가 실제 소비 증가보다 상품 가격 상승으로 왜곡되어 오히려 경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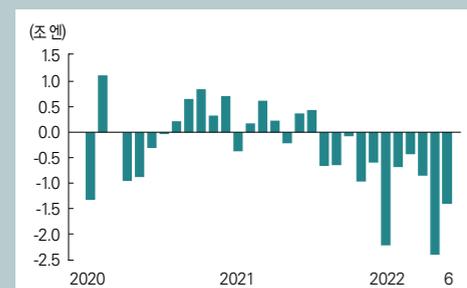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올 2분기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0.4% 기록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투자를 제외한 주요 지표가 위축되며 0.4%를 기록했다. 2분기 중국 경제는 상하이 봉쇄조치로 4월 소비(-11.1%)와 생산(-2.9%)이 위축되며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6월 들어 봉쇄 완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로 소비가 개선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6.9(2020.Q1) → 6.4(Q4) → 18.3(2021.Q1) → 7.9(Q2) → 4.9(Q3) → 4.0(Q4) → 4.8(2022.Q1) → 0.4(Q2)

무역수지



자료 일본 재무성

1~6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 75.2조 원, 역대 최고 수준 기록

2022년 상반기(1~6월) 무역수지 적자는 약 7.9조 엔을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적자 폭(1979년 이래)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6월 무역수지가 -1.4조 엔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의 하락이 더해지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올 상반기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7.9% 증가했다.

※ 무역수지(조 엔): 0.43(2021.7) → -0.65(8) → -0.42(2022.3) → -0.84(4) → -2.38(5) → -1.38(6)

Japan

Eurozone

PMI



주 기준=50 자료 S&P 글로벌

유로존 PMI,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전월 대비 하락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49.6으로 집계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PMI도 50.6으로 2.2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5개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PMI는 25개월 만에 기준치인 50을 하회하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빅스텝 단행(기준금리 50bp 인상)으로 통화 긴축을 가속화했다. 경기 둔화 우려에 통화긴축까지 겹치며 유로존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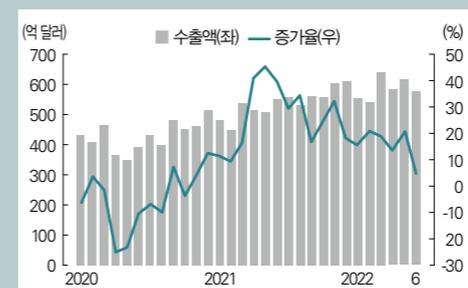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물가 상승 압력은 심화, 고용은 증가세 지속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전년 동월 대비),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4.4%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다. 석유류의 상승 폭이 크게 증가(34.8%→39.6%, 전년 동월 대비)했고, 원재료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식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오름폭이 확대(5.1%→5.8%)되었다. 6월 취업자 수는 2,847.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1만 명 증가했다.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수요가 전환됨에 따라 숙박, 음식 등 대면서비스 고용이 개선된 반면, 전문 과학, 정보통신 등 비대면서비스 고용은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수출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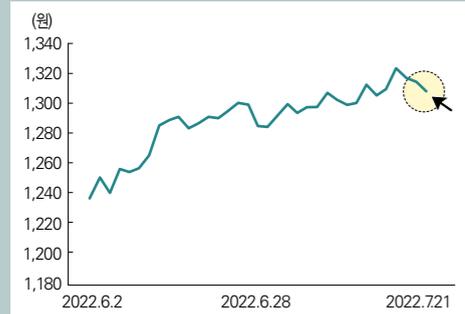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20개월 연속 증가, 6월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호조

6월 수출(576.3억 달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해 역대 6월 수출 1위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12.2%), 유럽연합^{EU}(0.5%), 일본(2.2%)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의 소비와 생산 둔화 영향으로 소폭 감소(-0.8%)했다. 7월 1~1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7% 증가했다.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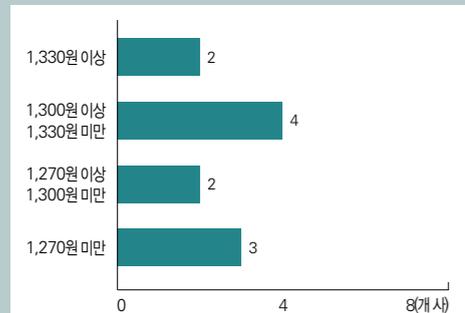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7월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환율 유지 (2022.6.30일 1,292.9원~7.15일 1,310.0원~7.21일 1,308.6원)
 미국 인플레이션 심화(6월 CPI 9.1%)로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기준금리를 1.0%p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안정되었으나, 1,300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월 원/달러 환율은 현 수준의 높은 환율 지속 예상
 8월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경기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

주요 IB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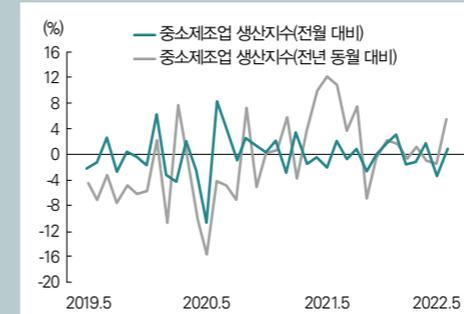
주 2022년 3분기 자료 블룸버그

2022년 3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96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2년 3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296원으로 조사되었다. '1,300원 이상 1,330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모건스탠리(1,330원) 등을 포함, 4개 사로 가장 많았다. 최소값은 1,250원, 최대값은 1,350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77원
 2022년 4분기 말 원/달러 환율에 대해 주요 IB들은 평균 1,277원으로 전망했다. 환율 전망치의 최소값은 1,185원, 최대값은 1,330원으로 나타났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2.6.28~7.15일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2년 5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0.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기계장비(6.2%), 자동차(1.8%), 의약품(4.8%)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13.8%), 반도체(-1.7%), 기타운송장비(-2.3%)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24.3%), 자동차(15.9%), 의약품(23.0%)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6.0%), 통신·방송장비(-12.2%), 화학제품(-1.1%)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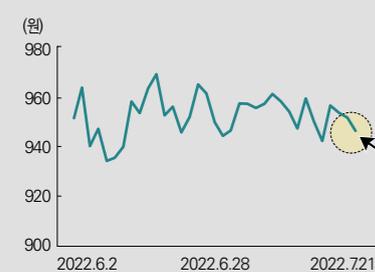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상승
 2022년 5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상승한 72.7%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중기업(50~299인)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22년 5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금속가공(5.0%), 식료품(3.1%), 화학제품(1.1%)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18.0%), 석유정제(-16.2%), 1차금속(-2.6%)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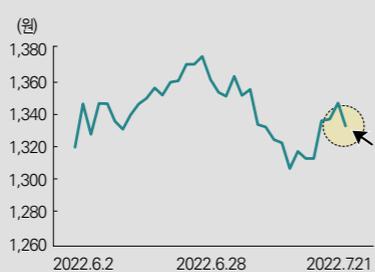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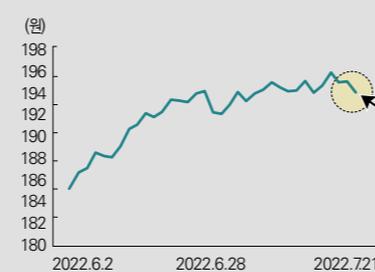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고용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2년 5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만2,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4만 명 감소,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77만2,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45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2년 5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9,000명이 증가해 569만 7,000명을 기록했다.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서의 비상 울산미포산단은 자동차·조선 산업의 친환경·스마트 기반 모빌리티 산업 전환, 탄소중립 산단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수도 울산의 핵심 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대한민국 경제수도 울산에서도 핵심 단지로 손꼽히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이하 울산미포산단)는 첫 공장이 들어선 지난 1964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국가산단의 중심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울산미포산단은 최근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기존 산단에 디지털·친환경 요소를 융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불릴 만큼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기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업종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다. 울산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임해공업단지, 총 면적은 4,559만㎡, 산업시설 면적은 3,470만㎡에 이른다. 나머지는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이다. 산업시설 면적만 서울 여의

도의 10배가 넘는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1962년 1월부터 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최초로 들어선 산업체는 대한석유공사 정유공장(1964년 5월 준공)이며, 이를 주축으로 하는 석유화학 계열의 공장들이 뒤이어 들어섰다. 연간 생산 규모가 33만 톤으로 당시로써는 세계 최대의 요소비료(한국비료) 공장이 세워졌다. 1974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를 세웠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들어섰다. 이로써 석유화학, 비료,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업 지역은 더욱 확장되어 온산, 미포에도 새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중 울산과 미포는 1991년 1월 14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전체 국가산단 수출의 25% 차지

울산미포산단 기업들의 규모별 분포(가동 기업 중심, 2021년 말 기준)를 보면 50인 미만이

464개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 108개사, 300인 이상이 50개사에 이른다. 이 중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한화케미칼, SK에너지, 롯데케미칼, 태광산업 등이 있다. 타 산업단지에 비해 대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울산미포산단의 위상은 숫자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수출액은 477억 달러로 40여 개에 이르는 전체 국가산업단지 수출액(1,885억 달러)의 25.3%를 차지했다. 무려 국가산단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고용인원은 8만8,914명에 달한다. 가동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4월 가동률은 89.1%로 90.0%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가동률(85.1%)이나 올 3월 가동률(86.7%)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고민도 있다. 오랜 산업화의 역사만큼 낡은 공장도 많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스마트 편의시설 구축

이를 위해 울산미포산단은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2월 울산미포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시켜 울산미포산단이 미래형 친환경 산업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에 디지털·친환경 요소를 융합해 미래형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이곳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화, 첨단화, 친환경화 등을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미래 산업 전환 및 탄소중립



단지 규모

총 4,559만㎡
산업시설 3,470만㎡



입주 기업

811개



업종

기계

222개사

석유화학

192개사

운송장비

130개사

전기전자

112개사

기타

155개사



규모별 가동 기업

50인 미만

464개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108개사

300인 이상

50개사

*300인 이상 대기업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한화케미칼, SK에너지,

롯데케미칼, 태광산업 등

주 2022년 3월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형 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울산미포스마트그린산단의 비전은 '스마트 Smart - 탄소중립 Carbon Neutral - 안전 Safe 산업단지 구현'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 △저탄소·고효율 선도기지 구축 △안전 산업단지 구현 △자원순환·친환경 청정 산업단지 전환 △산업단지 첨단 일자리 창출 거점화를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먼저 스마트 분야에서 △스마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조선 산업의 친환경·스마트 기반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입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그린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플랫폼을 확보하며,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업단지 운영사업을 통해 주요 배출 부산물 및 자원 이용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 지역 거점단지로도 선정되어 인근 산업단지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관련 단지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매곡일반산업단지 등이며 친환경 경자자동차벨트와의 연계 기능도 수행한다. 김정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울산미포산단이 경쟁력 있는 친환경 혁신 공간으로 거듭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또 다른 60년의 희망을 열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0년간 외길 걸어온 플랜트 건설 기업

(주)유백

1982년 설립된 유백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조선소의 고압배관, 각종 유류저장탱크, 장치물, 철구조물 등을 제작 설치한 경험과 오랫동안 공장을 정기 보수를 노하우를 토대로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추구해 왔다. 특히 사명을 변경한 2007년부터는 최신 장비와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해 장치물 제작에서부터 현장 설치, 유지보수 분야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유백의 특화 기술은 △중질유 공장의 촉매 교체공사 △해저배관 보수공사 △헤비월 Heavy Wall 배관공사 △압력용기 Pressure Vessel 및 열교환기 Heat Exchanger 제작 및 보수공사 등이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대만,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등 해외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9년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공장을 건설했거나 유지보수를 한 고객사는 국내외를 합쳐 100곳이 넘는다.

2세 경영인인 김형신 유백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고객 만족"이라며 "지속적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객과의 현장밀착경영 유백은 울산 지역 2곳과 서산, 경주 등 국내 4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하다.

선박용 엔진 및 로봇 컨트롤 분야의 강자

(주)유명

1995년에 설립된 유명은 선박용 엔진 컨트롤러를 생산해 현대중공업에 공급하고 있다. 현대로보틱스에 로봇 컨트롤러도 공급하고 있다. 자체 임직원은 40여 명, 관계사를 포함할 경우 80여 명에 이르는 강소 기업이다. 창업 초기인 1998년 현대중공업 1차 협력기업으로 등록했으며 유명이 개발한 엔진 컨트롤러는 △힘센엔진 자동 컨트롤 시스템 △드림십 제너레이터 엔진 자동 컨트롤 시스템 △메인 엔진 컨트롤 시스템 등이 있다. 유명한 기술연구소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산실로 조선·해양·육상용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을 연구·개발 R&D하고 있다. 창업자인 김종배 유명 대표는 기업의 생명은 끊임없는 R&D와 인력 개발의 투자라고 믿고 조선 및 해양 산업의 기술 자립과 발전을 위한 R&D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기술로 고가의 외국 장비를 국산화하는 등 수입 대체효과가 큰 장비 개발과 신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양산을 계획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환경 분야와 차세대 대체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인력 및 설비에 집중 투자해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술연구소 통한 미래 먹거리 개발 유명은 끊임없는 기술 연구로 다양한 인증을 획득했고, 2009년에는 R&D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의 울산미포산단 입주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

● **IP사업화자금 대출**

담보력은 약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지식재산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한다. 전문 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 평가를 받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수준의 매출액, 신용등급, 부채비율, 기술 등급 등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IP사업화자금대출을 위한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해 상품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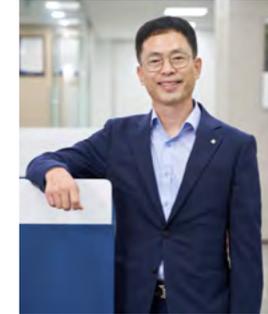
● **동반성장 협력대출**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예치한 예금을 활용해 협력 기업들에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울산미포산단은 대기업 중심의 1·2차 협력 기업이 많아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잘 활용하면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SG경영 성공지원 시설자금대출**

ESG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ESG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출금리와 한도를 우대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관련 우수 기업으로 IBK ESG 자가 진단을 완료한 중소기업에 ESG 관련 시설자금(동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포함)을 지원한다. 필요 시 ESG컨설팅과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도 제공되어 ESG경영 우수 기업이라면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INTERVIEW



이원경 IBK기업은행 울산공업단지점장

울산공업단지점은 당초 울산중앙기업금융지점으로 출발한 역사가 있어 과거부터 함께 걸어온 최고의 우량 기업들이 여전히 주 고객으로 거래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객과의 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원경 지점장은 수시로 거래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적절한 대안을 제안하는 등 세심한 고객 관리로 울산미포산단 내 많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IBK기업은행의 강점인 중소기업 특화 상품과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규현 IBK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장



울산의 중심상업지구인 울산중앙지점은 현재 2,000여 개 기업에 5,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건물 내 신용보증기금, IBK울산WM센터, IBK투자증권이 입주해 있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울산미포산단 내 중공업·자동차·석유화학 산업 중심의 1·2차 협력사가 주 고객이며, 입주 기업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협력대출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앞세워 고객 유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규현 지점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유동성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백준기 행복한 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엔 공인노무사였으며, 그로서, 공공기관 협회, 금융권, 제조업 등 다수 조직에 대한 책임 자문을 맡고 있다.

퇴직급여의 유형 및 특성과 지급 시 유의사항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 중 몇 가지 기업에서 꼭 챙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퇴직급여의 유형과 그 특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퇴직급여의 유형 및 특성

퇴직급여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제7호 참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러한 퇴

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 작성 및 교부 대상 | 퇴직금과 동일하게 회사가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월급의 12분의 1을 직접 운용 |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연 1,800만 원 한도)을 직접 운용 |
| 수령 방식 | 연금 또는 일시금 | | |
| 급여 수준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합 ± 운용손익 |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손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 추가 입금 | 불가능 | 가능 |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능 | 조건부 가능 | 조건부 가능 |
| 수령 요건 | 연금 | 55세 이상, IRP 이전 후 수령 | |
| | 일시금 | 연금 지급 요건 미충족 시 또는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 |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일 퇴직금제도가 아닌 DB형이나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DB형의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 의무

지난 4월 14일부터는 DB형 퇴직연금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재정 검증 후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은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결산월 기준)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적립 부족 해소 여부를 점검해 행정지도를 통해 이행을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4월 29일 퇴직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참고).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정한 퇴사 절차를 차질 없이 거칠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입사할 당시나 연봉 등 계약 갱신 시점 등과 같이 퇴사 전에 근로자의 IRP 계좌 정보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된 사유에 한해 허용되는데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근로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일반 계좌로 납입할 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정현주 세무법인 세일 화성지점 대표세무사
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의 세법해석제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 적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세법이 매년 개정되다 보니 정확한 세법을 사업에 적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세청에서는 단순 세무 상담을 위해 국세상담센터와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운영하고 있지만 복잡한 세법 해석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면질의

- ① **내용** 민원인의 세법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세무상 궁금증 해소
- ②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 ③ **신청기한** 신청기한 제한 없음
- ④ **신청 대상** 세법 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
- ④ **효력** 과세관청에 구속력은 없으나 국세공무원이 결정하는 세법 적용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함(일반론적 견해 표명에 해당해 신의성실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세법해석사전답변

- ① **내용** 민원인이 실명으로 자신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세법 해석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국세청장에게

- 질의하면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 확보 가능
- ②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 ③ **신청기한** 법정신고기한 전
- ④ **신청 대상**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거나 조만간 확정될 것이 확실한 민원인 본인의 특정 거래에 대한 세법 해석 사항(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⑤ **효력** 과세관청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답변 내용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거래를 이행한 경우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함(공적 견해 표명으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됨)

답변 내용 공개

서면질의와 세법해석사전답변의 회신 내용

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한다. 다만, 세법해석사전답변의 회신 답변 내용에 대해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세무 상담은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서 유사 사례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상담에 질문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 126번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국세청의 공신력이 있는 답변이 필요할 때는 서면질의나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명확한 세법 해석을 통해서 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법 해석 신청 제외 대상 및 반려 대상

| 구분 | 서면질의 | 세법해석사전답변 |
|------------------|--|---|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우편, 팩스,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세법해석사전답변은 팩스 신청 불가) | |
| 신청 제외 대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3. 조세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6. 세원 관리 또는 조사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 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7.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3. 조세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6.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
| 신청서 반려 대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제외 대상 2. 보완 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의 질의 4.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의 질의 5. 과세 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 6.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7.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 2. 보완 요구를 했으나 보완 요구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4. 신청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정점이 불분명해 세법 해석이 곤란한 경우 5. 신청서 접수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 표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는 남과 다르다는 생각이 기업의 혁신을 이끈다

1970년대 3만 원으로 플라스틱 사업을 시작한 이래 끝없는 도전으로 50년 동안 사업을 이어온 이국로 회장은 언제나 '진검승부'의 마음으로 경영을 한다. 최선을 다하고, 남들과 다른 전략만이 기업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단돈 3만 원으로 창업한 지 어언 50년이 되어 간다. 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뒤 1973년 서울 마장동 33m짜리 월세 공장에서 플라스틱 파이프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하면서 지주, 사이몬 등 몇 개 기업을 창업하고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 주위에서 어떻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는지 묻곤 한다. 수백 개의 플라스틱 파이프 기업이 수없이 명멸하고, 창업한 지 10년을 못 넘기는 기업이 허다한 가운데 어떻게 굴지의 플라스틱 파이프 기업을 일궈냈는지 궁금하다는 뜻이다. 필자가 창업한 사이몬과 지주는 플라스틱 파이프 분야에선 국내 2위다. 굳이 비결을 말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필자의 좌우명은 '나는 남과 다르다'다. 사업도 이런 정신으로 해 왔다. 경영학 용어로 '차별화'다. 차별화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R&D 등 모든 면에서 이뤄진다. 사이몬의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김포, 관계사인 지주의 본사는 경남 창원, 공장은 충북 음성에 있다. 양사를 합친 공장 규모는 약 6만6,000㎡인데 최근 음성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공장 면적은 9만 9,00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공장치곤 꽤 큰 규모다. 공장 규모부터 차별화했다.

R&D에서도 차별화했다. 개발한 제품을 종류와 규격에 따라 분류하면 수백 종에 달한다. 수도관용·하수관용·통신용·전선용·가스관용 파이프 등이 있다. 지름이 1,300mm에 이르는 대구경 파이프도 있다. 용도에 따라 소재와 물성이 전부 다르다.

예컨대 땅속에 묻히는 통신용 파이프는 주름관 형태를 띠고 있다. 땅속의 지형물에 따라 자유자재로 매설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관용은 인체에 해가 없는 소재로 만든다. 수돗물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한 보온용 파이프도 있다.

둘째, 진검승부다. 필자는 평생 운동을 해 왔다. 검도 8단에 태권도는 9단이다. 검도는 8단이 최고봉이다. 8단은 검도에선 신의 경지에 들어선다는 의미에서 '입신入神'으로 불린다. 검도의 기본 정신은 '활인검活人劍'이다. 남과 싸우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검이라는 의미다. 사업도 비슷하다. 운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할 때 늘 '진검승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비즈니스

에선 고객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좋은 품질로 고객의 요구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개발한 '접철관'을 보자. 낮은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수도관을 전부 파내서 바꾸기는 힘들다. 이를 해결한 게 접철관이다. 원리는 복강경수술과 비슷하다. 우선 도로를 최소한의 구간(예컨대 1~5m)만 굴착한다. 수도관을 절단한 뒤 세척도구로 내부를 청소한다. 그 뒤 주름처럼 접힌 접철관을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그 속으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접철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수도관 안에 밀착된다. 파이프 절단면을 이어 붙이고 도로를 다시 덮는다. 최소한의 도로만 파헤쳐 일정 구간의 공사를 간편하게 끝마치는 것이다. 접철관을 개발해 상용화한 곳은 세계적으로 서너 개 국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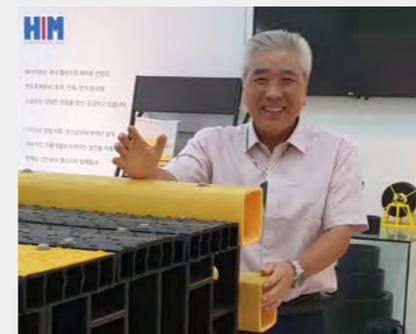
셋째, '입정立正'의 정신이다. 우리 회사의 사훈은 '입정'이다. 바른 것을 세운다는 의미다. 필자는 검소하다. 수십 년 된 양복을 짜깁기해서 입고 구두 밑창을 갈아 신는다. 애용하는 식당은 사무실 근처 가정식 백반집과 잔치국수집이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필자는 무도인 육성과 전통 무예 창달을 위해 사재를 연차적으로 출연키로 하고 한국예도문화장학체육재단을 출범시켰다. 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다.

무도인 가운데 생활고를 겪는 선배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도 필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서울에 무도관도 세울 생각이다. 뭔가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겠다는 게 필자의 소망이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 사훈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 운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할 때 늘 '진검승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비즈니스에선 고객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좋은 품질로 고객의 요구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이몬은?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다. 주요 제품은 PE 파이프, PVC 파이프 등 플라스틱 제품이다. 관계사인 지주(1973년 창업) 등을 포함한 계열사 전체 연간 매출은 약 600억~700억 원대에 이른다. 용도별로는 수도관용·하수관용·통신용·전선용·가스관용 파이프 등이다. 플라스틱 파이프의 단점인 연결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판도관' 등 10여 가지 신제품을 개발했다.



이국로 회장

1947년 충북 진천 출생. 한양대 재료공학과를 나와 1973년 플라스틱 파이프 기업 지주를 창업한 뒤 지주에 이어 사이몬, 유화수지, 오노 ONO 등의 기업을 일궈냈다. 이들 기업의 주력 제품은 플라스틱 파이프와 특수 파이프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한국플라스틱조합 이사장(10~12대), 플라스틱재활용협회 초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용인대에서 체육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검도 8단에 태권도 9단이다. 이 회장은 50여 년 동안 검도를 해 왔다. 저서로 <수양修身>, <실전 우리검도>, <무경신서> 등이 있다. '한국예도문화장학체육재단'을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원로 무도인을 지원하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IBK ESG컨설팅

IBK ESG자가진단 Tool
바로가기
esg.ibkbox.net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 환경오염
- 인권, 성평등
- 윤리경영, 반부패
- 에너지관리 등
- 산업안전 보건 등
- 법령준수 등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관리 요소

ESG란?



IBK ESG 컨설팅 소개



중소기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접근해 ESG경영 추진단계별 맞춤형 교육·진단·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거래 영업점을 통해 희망하는 컨설팅 신청 가능

- 교육** ESG인식제고 및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진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ESG경영수준 단계별 진단서비스 제공
- 심화 컨설팅** 진단을 통해 확인된 이슈 및 개선사항에 대한 솔루션 제시

ESG경영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접근은 편리'하고, '진단은 차별화'되며, '결과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IBK ESG자가진단 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IBK ESG 자가진단 툴



일상에선 개인카드로,
비즈니스 할 땐 법인카드로
경계 없는 CEO 라이프를
한 장의 카드에!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세상을 산다



CEO dual 카드 단 한 장으로 CEO의 일과 삶, 모든 순간 품격이 되다!

CEO의 라이프를 완성하는 혜택
Dual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한 장으로 결합
CEO 토탈서비스 골프, 여행 등 CEO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혜택 제공(개인)
Air Money 포인트 국내외 항공권·국내골프장 그린피 결제 가능(개인·기업)
기업카드로 결제해도 개인에게 포인트 적립

발급대상 : 개인 + 기업 지정자 * 단독발급은 개인카드만 가능
브랜드 및 연회비
Dual(개인+기업) Master 23만원, BC(국내전용) 22.4만원
개인 Master 22만원, BC(국내전용) 21.5만원
기업 Master 1만원, BC(국내전용) 0.9만원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1566-2566)에 문의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환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기준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750호(2022.07.22) 유효기간(2025.07.2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1-05376호(2021.06.23) · 이 안내장은 2022.04.15일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운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ibkethics@ibk.co.kr)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서비스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배달 손님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포스기를 놓고 간 날에는
손님들도 불편하고
저도 기름값 두 배로 들고
참 난감하죠.

근데 IBK BOX POS를 다운받고 나서는
그럴 일이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내 폰을 POS기로

요즘 사장님을 위한 모바일 POS
IBK BOX POS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135호(2022.06.16) 유효기간(2023.06.15)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지금 플리이스토어에서
IBK박스포스 앱 검색해보세요